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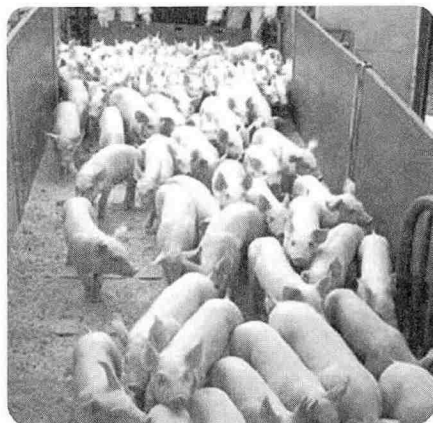
기획특집 [1]

사료요구율 개선을 통한 양돈 생산비 절감방안



홍종욱 양돈 R&T
대성팜스코(주) 마케팅실

‘곡물가 폭등, FTA보다 더 무섭다’ 어느 축산 관련 신문에서 1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다 보니 외국의 원료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곡물가 폭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는 저 제목에서 양돈 경영주들의 고통을 느낄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다. ‘배합사료 주요 원료인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곡물가 폭등에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탈출구가 없자 FTA 보다도 오히려 곡물가 폭등이 국내 축산업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냐는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쓰여져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31일자 기준으로 옥수수 가격이 톤당 247.17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는 1개월 전보다 22달러 이상 오른 가격이며 전년 동기 대비 98달러 이상 급등한 가격이다. 대두는 옥수수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배합비를 구사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료회사나 양돈 경영주 모두에게 어려운 시련과도 같은 시



간을 지나고 있는 셈이다. 그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곡물 가격은 통제 불능 그 자체인 것이다. 이렇듯 국제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사료비가 비육돈 생산비의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 축산 관련 신문사에서 대한민국 양돈 생산성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낸 메시지가 생각난다. '06년 대한민국 양돈 3관왕 신기록 수립. 일반적으로 몇 관왕 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양돈 3관왕 신기록 수립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에서 양돈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모돈 사육두수를 기록하였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폐사율은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보니 국내 수입업체들이 돼지고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들여와 수입량은 210천톤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양돈 성적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산해 보자.

표 1. 년도별 농장 출하배수

년	월	모돈두수, 천두	출하두수, 천두	출하배수
2003	03	985	1,277	1.30
	06	985	1,146	1.16
	09	988	1,215	1.23
	12	975	1,464	1.50
2004	03	962	1,293	1.34
	06	967	1,119	1.16
	09	938	1,136	1.21
	12	935	1,396	1.49
2005	03	948	1,207	1.27
	06	956	1,026	1.07
	09	965	1,099	1.14
	12	966	1,179	1.22
2006	03	990	1,173	1.18
	06	999	965	0.97
	09	1,006	1,177	1.17
	12	1,012	1,155	1.1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1은 년도별 농장 출하배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제시한 숫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축통계조사결과'와 '축종별 도축실적'을 기초로 계산된 숫자이다. '03년 평균 출하배수는 1.30으로 MSY는 15.6두가 된다. 이러한 생산성이 '05년 들어와 급격히 하락하면



서 '06년 평균 출하배수는 1.12배수로 MSY는 13.4두인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작년 평균 출하체중이 110 kg 이기 때문에 WSY (연간 모든 두당 비육돈 출하체중)는 1.47톤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

무엇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MSY 14두로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양돈을 경영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수입육과 맞설 수 있는 특단의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어려워 지게 된다. 누구 말했던 것처럼 높은 비육돈 생산비와 함께 한미 FTA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MSY (연간 모든 두당 비육돈 출하두수) 20두는 달성해야 농장 손익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국내 평균 MSY는 14두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양돈 생산성은 '80년대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두라는 숫자는 손익분기점을 말하는 MSY이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MSY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로 하는 MSY를 무작정 높게 잡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접근해야 할까? 필자가 판단하기에 비육돈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비를 낮추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유장 가격의 급상승은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료회사는 물론 양돈 경영주에게 경제적으로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심만 얘기하면 비육돈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료요구율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표 2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06년 월별 사료요구율 표이다. '06년 평균 사료요구율은 3.63으로 전년도 3.51보다 0.12 상승하였다. 비육돈 사료요구율이 0.1 상승하게 되면 사료비가 110 kg 출하 기준으로 두당 4,000원정도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사료 원료의 대부분의 수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인 것 만은 분명하다.

표 3은 출하체중 110 kg을 기준으로 사료요구율과 사료 단가에 따른 비육돈 생산비를 나타낸 것이다. '06년 국내 평균 사료요구율이 3.63이므로 표 3에서 사료요구율을 3.60으로 놓고 사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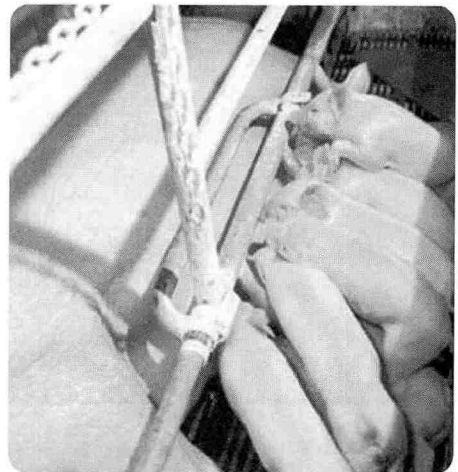
표 2. '06년 월별 도축두수와 사료 생산량에 따른 사료요구율

월	도축두수, 두	사료 생산량, 톤	사료요구율
01	1,097,161	429,172	3.52
02	1,028,827	399,568	3.47
03	1,168,568	423,688	3.27
04	1,048,886	398,450	3.42
05	1,053,980	415,883	3.52
06	965,178	413,817	3.90
07	912,035	410,647	4.25
08	1,069,813	419,919	3.60
09	1,177,298	468,908	3.72
10	1,088,255	468,940	3.88
11	1,234,869	459,534	3.35
12	1,157,704	466,541	3.63
평균	1,083,548	431,256	3.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가를 370원이라 했을 때 비육돈 두당 사료비는 146,520원이 된다. 그러나 사료요구율이 3.5로 0.1이 떨어지면 사료비는 142,450원으로 4,070원이 떨어진다. 일반관리비 80,000원을 더하여 평균적인 비육돈 두당 생산비를 220천원이라 했을 때 110 kg 출하기준으로 '07년 1-5월 평균 돈가 3,167원 (서울 기준)에 지급율 70%을 적용하면 비육돈 1두 출하했을 때 244천원이 정산되고 여기에 생산비 220천원을 빼면 실제로 양돈 경영주 지갑에 남는 돈은 두당 24천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비육돈 1두 출하해서 얻는 수익이 24천원 정도라면 사료요구율 0.1을 개선시켜서 낮출 수 있는 사료비 4천원은 1만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한 채 사료 단가와 사료요구율만으로 계산된 것이라 설득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MSY 향상과 함께 사료요구율을 낮출 수 있는 사양관리 기술과 급여 프로그램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월 들어 지육 단가가 4,000원을 넘기 시작하면서 많은 농장에서 잠시 한숨 돌리고 있을 것이다. 대상팜스쿠에서



전망하는 지육 단가에 따르면 지금의 행복한 시간이 8월 중순경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월 들어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돈가가 생산비 이하로 떨어 진다면 양돈 경영주의 선택은 사료 가격이 싼 사료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격이 싼 사료가 사료요구율을 크게 낮추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사료요구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출하 체중 도달 일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이럴 때 일수록 사료요구율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급여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말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양돈 경영주가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많은 수익을 남기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㉟

표 3. 사료요구율과 사료 단가에 따른 비육돈 두당 사료비

사료 요구율	사료 평균 단가, 원/kg										
	400	395	390	385	380	375	370	365	360	355	350
3.60	158,400	156,420	154,440	152,460	150,480	148,500	146,520	144,540	142,560	140,580	138,600
3.55	156,200	154,248	152,295	150,343	148,390	146,438	144,485	142,533	140,580	138,628	136,675
3.50	154,000	152,075	150,150	148,225	146,300	144,375	142,450	140,525	138,600	136,675	134,750
3.45	151,800	149,903	148,005	146,108	144,210	142,313	140,415	138,518	136,620	134,723	132,825
3.40	149,600	147,730	145,860	143,990	142,120	140,250	138,380	136,510	134,640	132,770	130,900
3.35	147,400	145,558	143,715	141,873	140,030	138,188	136,345	134,503	132,660	130,818	128,975
3.30	145,200	143,385	141,570	139,755	137,940	136,125	134,310	132,495	130,680	128,865	127,050
3.25	143,000	141,213	139,425	137,638	135,850	134,063	132,275	130,488	128,700	126,913	125,125
3.20	140,800	139,040	137,280	135,520	133,760	132,000	130,240	128,480	126,720	124,960	123,200
3.15	138,600	136,868	135,135	133,403	131,670	129,938	128,205	126,473	124,740	123,008	121,275
3.10	136,400	134,695	132,990	131,285	129,580	127,875	126,170	124,465	122,760	121,055	119,350
3.05	134,200	132,523	130,845	129,168	127,490	125,813	124,135	122,458	120,780	119,103	117,425
3.00	132,000	130,350	128,700	127,050	125,400	123,750	122,100	120,450	118,800	117,150	115,500
2.95	129,800	128,178	126,555	124,933	123,310	121,688	120,065	118,443	116,820	115,198	113,575
2.90	127,600	126,005	124,410	122,815	121,220	119,625	118,030	116,435	114,840	113,245	111,650
2.85	125,400	123,833	122,265	120,698	119,130	117,563	115,995	114,428	112,860	111,293	109,725
2.80	123,200	121,660	120,120	118,580	117,040	115,500	113,960	112,420	110,880	109,340	107,800